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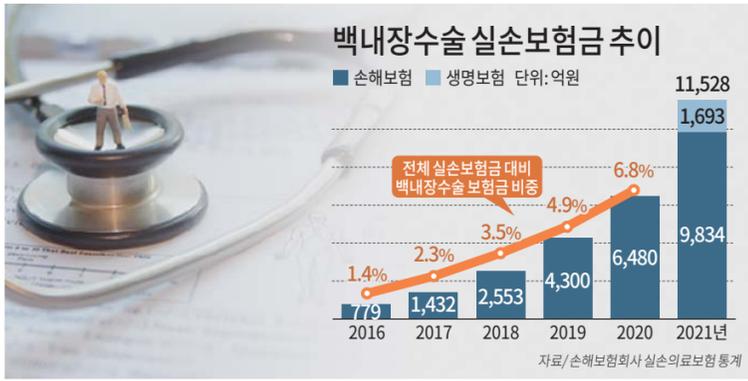
줄줄 새는 실손보험에 보험사 골머리... 상반기 손실액 1.4조

손보 실손보험 손실액 1조4128억
실손보험 손실액·위험손해율 늘어
일부 병원·가입자 과잉 의료 영향

실손보험 손실액이 날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이 크게 확대되며 새로운 실손보험금 누수 항목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손해보험사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1981억 원)보다 17.9%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생보사의 손실액까지 합산하면 1조70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위험손해율도 올랐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4%로 전년 동기보다 0.4%포인트(P) 늘어났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즉, 100%가 넘



으면 가입자가 지급한 비용보다 보험금으로 타간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137.2%를 기록한 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실손보험 손실액과 위험손해율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데는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소수 안과 병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안과 병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교정용 다초점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면서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뛰었다.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증가세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의 경우 노안성 질환이어서 보통 60대 수술인데 4050대도 시력교정 등의 내용으로 일부 안과 병원에서 수술을 시키는 등의 논란이 있다”며 “백내장이 눈에 삽입하는 렌즈에 따라서 다초점은 급여, 다초점은 렌즈가 비급여로 구분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다초점을 권유하거나 일명 ‘생내장’이라고도 부르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노안 및 시력교정을 이유로 수술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등이 지속되면 대다수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

위험손해를 악화가 이어지자 앞서 대다수의 손보사와 생보사는 실손보험 판매 중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마저도 적은 가운데 보험금 누수 심화가 지속되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실손보험료 인상을 염려하는 가입자들의 염려도 높지만,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보험금 누수 원인인 비급여 항목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손실액과 위험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는 하지만 실손보험료 인상은 25%로 법으로 제한이 되어있다”라며 “다수가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면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해율을 관리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보험업계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라며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자칫하면 보험료도 오르고 손해율도 오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소비심리 오름세... 카드사, 관련 마케팅 활력

카드사, 명품·여행 수요 겨냥
추가 할인·적립 이벤트 선배



롯데카드는 연말까지 월 최대 30만 엘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이어갈 계획이다. /롯데카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가시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다. 카드업계는 소비확대 기조에 발맞춰 명품 쇼핑, 여행과 관련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8로 8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

실제 카드 실적도 늘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8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승인건수는 19억 9000건, 승인금액은 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8.6% 증가했다.

소비심리가 폭발한 분야는 ‘명품’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명품가방 수입액은 약 3539억 원으로 2019년 8월 대비 약 99%(1764억 원) 급

신한카드는 10월 한 달간 ‘신한아메스 카드’로 마이아멕스 쇼핑 사이트를 경유, 명품 쇼핑몰 ‘매치스패션’에서 결제 시 최대 25.5% 캐시백을 제공한 다.

KB국민카드는 최근 명품 유통플랫폼 ‘인비트리’와 함께 명품쇼핑몰 ‘KB플렉스’를 오픈했다. 회원이겐 인비트리 오프라인 매장 상품 대비 8%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구매 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우리카드는 명품 쇼핑몰 ‘오케이몰’과 산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출시하고 오케이몰 상품 5만원 이상 결제 시 24·36개월 장기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 수요 회복이 전망되면서 항공권 및 숙박시설 할인 혜택도 풍성하다.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항공권 발매 건수가 8월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카드는 여행·액티비티 수요를 정조준, 인터파크TV 라이브커머스의 광·사이판 트래블 버블 상품을 최대 30만원 할인 제공한다. /권소환 기자 think@

“은퇴준비자 연금수령 시기 조정하세요”

금감원 Q&A

Q.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연금저축 또는 본인추가납입액에 해당하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저축과 본인추가납입액에 해당하는 IRP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은 연 1200만원 한도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 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55세 이후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 간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금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 인출시기 또는 금액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통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계좌를 통합한 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 부분만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계좌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기자 ysl@

하나銀, UN생물다양성 지원 선언문 참여

생물다양성 보호 위한 투자 확대

하나은행이 ‘생물다양성 지원 공동선언문’에서 명하고, EGS경영 확산 및 지속가능금융 실천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생물다양성 지원 공동선언문’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운남성에서 개최된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5)’에서 ‘은행업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보호 테마 포

럼’을 통해 채택됐다.

이번 포럼에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중국은행(BOC) 등 국제금융기구와 글로벌 30여 금융기관이 참여해 ‘생물다양성 지원 공동선언문’에서 서명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금융기관은 생물다양성 관련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등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17일 “하나은행은 이번 공동선언문 참여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와 금융 투자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에 적극 나선으로써 ESG경영 확산 및 지속가능 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銀, 펀드 신규가입 고객 이벤트

최소 1만원 이상 신규가입

NH농협은행이 펀드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연다.

NH농협은행 오는 11월 30일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펀드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폴 뉴 펀드(Fall New Fund) 가을맞이 비대면 펀드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농협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펀드상품(MMF 제외)에 최소 1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

모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14명에게 ▲1등 바디프랜드 안마 의자(1명) ▲2등 LG그램 노트북(3명) ▲3등 에어팟 프로(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2000명)를 제공한다. 1~3등은 당첨자 발표일(12월 15일 예정) 기준 잔액 100만원 이상인 고객만 당첨 가능하다. 신용인 WM사업부장은 “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개편된 비대면 채널을 통한 펀드 상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소환 기자